

# 재일코리안과 고려인의 초국가적 교류와 디아스포라 문화지형\*

- 『삼천리(三千里)』, 『민도(民濤)』, 『청구(靑丘)』를 중심으로

이영호\*\*

## I. 서론

1910년 8월 조선인들은 일제강점기를 맞이한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의 정책에 의해 수많은 조선인이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해방 직전인 1944년에는 약 200만 명<sup>1)</sup>의 조선인이 일본에 거주하게 된다. 조선인의 국외이주는 일본에 국한되지 않았다. 일제를 피해 조선인들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남미, 북미, 유럽 등 세계 각지로 퍼져갔다. 일제강점기는 조선인의 해외 이산과 교

---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8060885)

\*\*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문연구원

1) 정확한 수는 1,936,843명이다. (재일동포 연도별 인구추이 [발행년불명].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출처 : <https://www.mindan.org/kr/syakai.php>)

리안 디아스포라(Diaspora)<sup>2)</sup> 형성의 결정적 원인이었다. 1945년 8월, 해방을 맞이하며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 약 140만 명이 조국에 돌아오지만, 약 60만 명은 일본에 남아 재일코리안<sup>3)</sup> 사회를 형성한다.

재일코리안들은 해방 이후 일본에서 『민주조선(民主朝鮮)』을 시작으로 시대마다 다양한 매체를 발행하며 문화활동<sup>4)</sup>을 전개했다. 특히 1970년대 『계간 삼천리(季刊三千里)』, 1980년대 『민도(民道)』, 1990년대 『계간 청구(季刊靑丘)』는 동시대 재일코리안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록하며 담론을 형성했다.<sup>5)</sup>

일본정주(定住)가 일반화 된 1960년대 중반 이후,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는 한반도를 향한 관심을 나타냈다. 동시에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을 향한 관심 즉,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향한 관심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sup>6)</sup>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상호 거주국을 넘나드는 초국가적(超國家的) 문화활동을 전개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디아스포라간 교류는 1980-90년대 냉전과 해빙의 세계사적 상황과

- 2) 디아스포라(Diaspora)는 ‘흩뿌리다’는 뜻의 그리스어이다. 기원전 3세기에 70인역(Septuagint) 성서의 번역문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고대 유대민족이 패전 후 고향을 떠나 흩어져 살게 되면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이산의 경험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단어였다. 초기에는 유대인들을 지칭했던 용어지만 1990년대 디아스포라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면서 고국을 떠난 사람들, 정치적으로 망명한 자들, 무국적 거류자, 소수민족 등을 비롯해 자발적으로 고국을 떠나 타지에 정착한 이민자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William, S. (1991).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Canada: *Diaspora* 1(1), 83.)
- 3) 재일동포를 지칭하는 용어에는 재일코리안, 재일 디아스포라, 재일조선인, 지이니치 등 다양한 용어가 있으며 각 용어의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코리안(Korean)으로 지칭하고, 일본에 거주하는 코리안이라는 뜻에서 ‘재일코리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어떠한 정치성도 개입되지 않았다. 원문을 인용하거나 특정 대상을 구분해야 할 경우,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사전에 밝힌다.
- 4) 본고에서 언급하는 ‘문화’는 음악, 미술, 문학, 연극, 영화 등의 예술은 물론 사상,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이, 도덕과 같은 규범, 가치관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 5) 편의상 『삼천리』, 『민도』, 『청구』로 약칭하여 서술한다.
- 6) 본고에서는 해방 이후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를 고려인으로 명명한다. 원문의 표현을 인용하거나 지역이나 대상을 특정해야 할 경우 조선인, 사할린 한인 등 원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맞물려 형태적 변화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흐름은 『삼천리』, 『민도』, 『청구』와 같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매체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1차 매체들은 동시대 재일코리안 사회를 대표했던 지면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연구가 진척되었다. 특히 『삼천리』는 25건<sup>7)</sup>의 연구가 발표될 정도로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하상일<sup>8)</sup>은 각종 재일코리안 매체의 시, 비평 등의 문학 수록 양상을 정리하였다. 최범순<sup>9)</sup>은 『삼천리』의 서지사항을 정리하고 잡지 전반의 특성을 소개했다. 김용안은 두 편의 논문으로 『삼천리』를 다루었다. 첫 논문<sup>10)</sup>에서는 1975년 2월에 발행된 『삼천리』 11호의 「일본인과 조선어」 특집을 바탕으로 조선어와 일본인의 관계를 연구했으며, 두 번째 논문<sup>11)</sup>에서는 「우키시마마루호 폭침」 기사를 중심으로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보도된 자료의 가치와 의의를 분석하였다. 가네코 루리코(金子るり子)<sup>12)</sup>는 『삼천리』 1호부터 10호까지를 대상으로 일본의 진보성향 지식인이 한국, 북한, 재일코리안에 취한 태도와 언설의 양상을 분석했다. 강성우<sup>13)</sup>는 1970년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한·일 시민운동의 연대의 구체적 양상을 규명했다. 김환기<sup>14)</sup>는 지면에 수록된 문학 현황을 분석하여 『삼천리』의 가치와 재일코리안의 문학

7) 검색사이트는 KCI(kci.go.kr)이며, 검색일은 2022년 4월 12일이다.

8) 하상일 (2006). 재일 한인 잡지 소재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 - 조선문예, 한양, 삼천리, 청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42. 391-417.

9) 최범순 (2009). 『계간 삼천리』(季刊三千里)의 민족정체성과 이산적 상상력. 일본어문학, 1(41), 397-420.

10) 김용안 (2016). 『계간 삼천리』 시좌(視座) 연구 - 11호 특집 「일본인과 조선어」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70. 29-48.

11) 김용안 (2017). 『계간 삼천리』 연구 - 「우키시마마루호 폭침」 기사를 중심으로 -. 일본연구, 72. 177-199.

12) 金子るり子 (2017). 『季刊三千里』における日本進歩的知識人の「在日朝鮮人観」—1975~1977年を中心に. 일본어문학, 79, 391-418.

13) 강성우 (2019). 『계간 삼천리』로 보는 1970년대 한·일 시민연대운동. 인문사회21, 10(4), 353-365.

14) 김환기 (2015). 문예잡지 『三千里』와 재일코리안의 문화 정체성—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104, 135-152.

정체성을 연구했다. 전성곤은 세 편의 논문으로 『삼천리』를 연구했다. 첫 논문<sup>15)</sup>에서는 『삼천리』에 기술된 국가 담론의 양상과 개인이 주체성 발견 방식을 분석했다. 두 번째 논문<sup>16)</sup>에서는 재일한국·조선인에서 재일코리안으로의 변용을 확인하고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논했다. 세 번째 논문<sup>17)</sup>에서는 전후 일본이 새로운 국가 창건을 위해 형성한 조선관과 식민주의 양상을 분석했다. 오은정<sup>18)</sup>은 조선인 피폭 관련 기사 현황을 정리하고 피폭 담론의 전개양상을 분석했다. 김웅기<sup>19)</sup>는 재일코리안 민족교육에 관련된 일본인 교사들의 인식과 활동을 규명했다. 이한정<sup>20)</sup>은 지면 전반에 수록된 해외 재주 조선인 기사 현황을 정리하고 민족과 조국을 둘러싼 문화적 인식 차이를 규명하였다.

『민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민도』를 표제어로 다룬 8편의 선행연구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신승모<sup>21)</sup>는 특집을 비롯한 지면 전체의 구성을 분석하고 잡지의 문예·문화적 방향을 분석했다. 김주영<sup>22)</sup>, 양명십<sup>23)</sup>은 『민도』의 서지사항을 정리하고 주필 이회성의(李恢成)의 문제의식을 분석했다. 신재민<sup>24)</sup>은 다수의 논문에서 매체 특성 전반을 분석하고 박중호 문학 연

- 
- 15) 전성곤 (2019). 『계간삼천리』에 교차하는 공간과 주체. 日本思想, 36, 189-212.  
 16) 전성곤 (2019). ‘재일되기’와 ‘재일외부’ 사유에 대한 가능성 - 『계간삼천리』를 중심으로 -. 인문사회21, 10, 1437-1450.  
 17) 전성곤 (2020). 세계주의의 편승이라는 ‘식민주의’와 독립적(倒立的) 내셔널리즘 - 『계간삼천리』와 내재성 문제를 중심으로 -. 일본사상, 39, 287-323.  
 18) 오은정 (2020). 『계간삼천리』 피폭조선인 기사를 통해 본 일본 지식인의 탈식민 담론 실천의 단층. 인문사회과학연구, 21(2), 319-351.  
 19) 김웅기 (2021). 『계간 삼천리』에 나타난 재일코리안 교육에 대한 일본인 교사의 인식과 실천. 일본학보, 127, 317-334.  
 20) 이한정 (2021). 재일조선인 잡지 『계간 삼천리』와 코리안 디아스포라. 일본어문학, 89, 167-199.  
 21) 신승모 (2014). 재일문예지 『민도(民濤)』의 기획과 재일문화의 향방 - 서지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일본학연구, 43, 79-100.  
 22) 양명십, 김주영 (2014). 재일문예 『민도(民濤)』 연구 - 『민도』의 서지 고찰과 이회성의의 문제의식. 일본어문학, 1(62), 369-392.  
 23) 양명십 (2016). 재일조선인 문학계보의 재해석 - 잡지 『민도(民濤)』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1(68), 215-234.  
 24) 신재민 (2016). 재일조선인 잡지 『민도(民濤)』 연구. 석사 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

구, 한국과 민중문화운동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청구』는 국내에 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하상일<sup>25)</sup>은 『조선문예』, 『한양』, 『삼천리』, 『청구』 등을 대상으로 문학의 수록 현황을 정리했다. 조강희<sup>26)</sup>와 이재봉<sup>27)</sup>은 언어 행동의 구성요소, 일본어에 조선어가 개입되는 양상 등을 어학적으로 분석했다. 나승희<sup>28)</sup>는 편집위원 강상중의 기사를 토대로 『청구』의 문제의식, 특성, 역할을 연구했다. 김태영<sup>29)</sup>은 전후 재일코리안의 가치관과 생활상의 변화를 연구했으며, 김환기<sup>30)</sup>는 문학기사와 특집을 글로컬리즘(Glocalism)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삼천리』, 『민도』, 『청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아스포라간의 초국가적 교류의 관점으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재일코리안 사회의 세대교체와 정주의식의 확산, 1980-90년대 냉전종식과 개혁·개방 시대의 도래로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새로운 국면과

---

어문학과.

신재민 (2018). 재일조선인 잡지 『민도(民洵)』 연구. 일본학보, 115, 193-212.

신재민 (2018). 박중호의 『回歸』론 - 민족사로서의 글쓰기와 정주의 재일성. 일어일문학, 77, 301-316.

신재민 (2019). 재일조선인 잡지 『민도』에 드러난 민중문화 운동의 실천과 양상— 1980년대 한국의 민중문화 운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일본학보, 120, 121-143.

신재민 (2020). 재일조선인 민중문화 운동과 민중문예 종합지 『민도(民洵)』 - 1970~1980년대의 민중문화 운동과 잡지의 실천을 중심으로 -. 일본학보, 122, 143-173.

25) 하상일 (2006). 재일 한인 잡지 소재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 - 『조선문예』, 『한양』, 『삼천리』, 『청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42, 391-417.

26) 조강희 (2006). 在日韓人 雜誌에 나타나는 言語生活의 樣相 - 『民主朝鮮』 『朝鮮文芸』 『三千里』 『靑丘』의 「特集」과 「對談」을 중심으로 -. 일본어문학, 33, 93-124.

27) 이재봉 (2007). 국어와 일본어의 틈새, 재일 한인 문학의자리 - 『漢陽』, 『三千里』, 『靑丘』의 이중 언어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문학논총, 47, 163-199.

28) 나승희 (2007). 재일한인 잡지의 변화의 양상과 『청구』의 역할. 일어일문학, 36, 225-238.

29) 김태영 (2007). 에스닉미디어에 나타나는 자기정체성의 전개 - 季刊誌 『三千里』·『靑丘』를 중심으로 한 재일한인의 민족적 성격의 변화. 한국민족문화, 30, 209-230.

30) 김환기 (2014). 『靑丘』와 재일코리안의 자기정체성 - 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 일본연구, 22, 155-178.

마주한다. 이런 상황에서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는 동시대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담아 디아스포라간의 교류를 전개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간의 ‘초국가적 상호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1970-90년대의 대표 매체인 『삼천리』, 『민도』, 『청구』에서 드러나는 재일코리안과 고려인의 교류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시대별 교류의 구체적 현황과 변천을 확인하고 디아스포라 문화의 탈/재영토화 현상을 규명한다. 이와 같은 연구 수행을 통해 본국과 거주국에 끼친 디아스포라의 문화적 영향력과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재일코리안 잡지 『삼천리』·『민도』·『청구』와 고려인

### 1. 매체 서지사항 및 특징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는 1946년 4월 『민주조선』을 시작으로 시대마다 다양한 매체를 발행하며 문화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정주성이 강하게 나타난 1970년대에는 『계간 마당(季刊まだん)』, 『삼천리』 등이 창간되며 보다 많은 재일코리안 내/외부적 담론이 형성됐다.

1975년 2월 창간되어 1987년 5월에 50호로 중간한 『삼천리』는 1970-80년대를 대표하는 종합지였다. 편집위원은 강재언(姜在彦), 김달수(金達壽), 김석범(金石範), 박경식(朴慶植), 윤학준(尹學準), 이진희(李進熙), 이철(李哲)이었으며 발행언어는 일본어였다.<sup>31)</sup> 『삼천리』의 창간과정을 살펴보면 잡지 『일본속의 조선문화(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의 아유회가 있던 1969년 4월 21일, 김달수가 근대 한일 관계를 다루는 잡지를 도쿄에서 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사업가 서채원이 “잡지의 적자는 내가 떠안겠다”며 후원자로 나서며 『삼

31) 잡지의 출간 이후 편집위원의 변화가 생긴다. 중간호 기준으로 김석범, 박경식, 윤학준이 그만두고 서채원(徐彩源), 서동호(徐東湖), 사토 노보유키(佐藤言行), 위양복(魏良福)이 참여했다.

천리』가 창간된다.<sup>32)</sup>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듯 『삼천리』는 한일관계에서 재일 코리안의 역할과 같은 국제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다음 창간사에서 『삼천리』의 지향점이 드러난다.

조선을 가리켜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도 한다. 「아름다운 산하의 조선」이라는 의미이다. 잡지 『계간 삼천리』에는 조선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 1972년의 「7·4공동성명」에 입각하여 「통일된 조선」을 실현하기 위한 절실한 바람이 담겨져 있다.

일의대수(一衣帶水)의 관계라 말하지만 조선과 일본은 여전히 「가깝고도 먼 나라」의 관계이다. 우리들은 조선과 일본 간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어, 서로 간의 이해와 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다리를 놓아가고자 한다.<sup>33)</sup>

『삼천리』는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의 정신에 입각해 창간되었으며 ‘통일된 조선’의 실현과 한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창간호의 ‘김지하(金芝河)’ 특집을 시작으로 김대중 납치사건, 민청학련 사건, 민주화 운동, 고대관계사 같은 한일 양국의 현안들을 폭넓게 다루었다. 『삼천리』에는 한국과 일본을 필두로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1,700명이 넘는 필진이 참여했다. 하지만 1987년 잡지가 중간하며 재일코리안 문화매체가 부재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1987년 10월 『민도』가 창간된다.

『민도』는 재일코리안 작가 이회성을 주필로 창간되었으며, 1987년 10월 창간호 발행을 시작으로 1990년 3월에 10호로 중간한 계간지였다.<sup>34)</sup> 발행언어는 일본어였으며 재일코리안 사회 최초의 ‘재일민중문예종합지’를 표방했다. 잡지명인 ‘민도’는 민중(民)의 물결(濤)<sup>35)</sup>을 의미하며 재일코리안 사회 일반대중의 ‘민중 문예운동’의 실천과 “재일자를 위한 문예광장”<sup>36)</sup>을 표제로 내

32) 이진희 (2003) 해협. 서울: 삼인, 202.

33) 編集委員会 (1975). 創刊のことば. 季刊三千里, 1, 11.

34) 매년 2, 5, 8, 11월에 발행되었다.

35) 잡지의 영문명은 MINTO(People's Waves)이다.

세웠다. 편집위원은 “배종진(裴鐘眞), 조선문학 연구자 이승옥(李丞玉), 민중 예술 운동가 양민기(梁民基), 소설가 박중호(朴重鎬), 소설가 종추월(宗秋月), 논픽션 작가 김찬정(金贊汀), 하이진(俳人) 강기동(姜琪東)이었다.”<sup>37)</sup> 『민도』의 발행사 민도사(民濤社)는 본래 시인 강순(姜舜), 작가 김태생(金泰生)이 고문이었던 <재일조선인문학자 유지의 모임(在日朝鮮人文學者有志の會)>을 모태로 결성되었다. 『민도』는 민중을 중심으로 제3세계와 연대하고자 했다. 다음은 『민도』의 창간호 권두언 중 일부이다.

세 가지를 제창하고자 한다.

1. 민족의 운명을 같이 짊어지고 가자.

1. 민주주의를 끝까지 추구하자.

1. 국제주의 정신을 사랑하고, 특히 제3세계의 민중과 연대를 깊게 해가자.

(중략)

이 문예지가 이번에 재일하는 자를 더욱 빛나게 하고 세계의 인간 상호간에 이해를 깊게 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면 우리에게 이보다 큰 기쁨은 없을 것이다.

민중의 물결이여, 일어나라.<sup>38)</sup>

해방 이후 최초의 재일코리아 문예종합지를 지향한 『민도』는 “기존 재일 조선인 지식인 중심의 담론 공간을 민중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재일조선인의 새로운 아이덴티티의 구축에 힘쓰고자 했다.”<sup>39)</sup> 또한 “민중문예운동이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서 독자적이고 이질적인 문화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sup>40)</sup>를 고민하며 “민중문예지로서 조선민족에 뿌

36) 編集部 (1988). 編集後記. 民濤, 2, 316.

37) 3호(1988.05.)부터는 강기동이 빠지고 6호(1989.02)부터 영화감독이자 각본가인 김수길(金秀吉)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한다. 편집부의 실무 스태프로 이강언(李康彦), 김신야(金進野), 양윤(梁潤) 등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 (신승모 (2014). 재일문예지 『민도(民濤)』의 기획과 재일 문화의 향방 - 서지적 고찰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43, 80.)

38) 編集部 (1987). 卷頭言. 民濤, 1, 1.

39) 신재민 (2018). 재일조선인 잡지 『민도(民濤)』 연구. 일본학보, 115, 195.

40) 編集部 (1987). 卷頭言. 民濤, 1, 1.



리 깊은 유교적 사고의 속박에서 탈피하여 자유로운 민중적 상상력의 세계를 펼치고 '재일하는 자가 창조할 수 있는 혼종적 문화운동을 지향했다.’<sup>41)</sup>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국제주의 정신을 사랑하고, 특히 제3세계의 민중과 연대를 깊게 해가자”라는 대목에서 디아스포라를 향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민도』는 재일코리안 민중문화 공간을 지향했으며, 디아스포라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도』가 종간을 앞둔 1989년 8월,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는 『삼천리』의 후속지 『청구』가 창간된다.

『청구』는 1987년 8월 창간되어 1996년 2월에 25호로 종간한 종합지이며 잡지명 ‘청구’는 과거 조선을 지칭하는 아호(雅號) 중 하나이다. 편집장은 이진희였으며 편집위원은 강재언, 위양복(魏良福), 강상중(姜尙中), 안우식(安宇植), 문경수(文京洙)였다. 발행언어는 일본어였으며 연 4회(2, 5, 8, 11) 발행되었다. 『청구』가 창간 직후 크게 주목받았던 이유는 『삼천리』의 후속지라는 상징성 때문이었다.<sup>42)</sup> 『청구』는 『삼천리』와 마찬가지로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중간자 역할을 지향했다. 다음 인용문에서는 『청구』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해협을 사이에 낀 이웃나라인 만큼 두 민족 간에는 불행한 관계에 빠진 적도 있지만 선린우호의 관계를 가진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되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지배와 피지배라는 불행한 관계가 있었던 탓에 교과서 문제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불모의 편견과 반발이 여러가지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현실이다.

상호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비추어 보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웃나라를 바르게 보고자 하는 사람들과 젊은 연구자는 매년

41) 신승모 (2014). 재일문예지 『민도(民濤)』의 기획과 재일문화의 향방 - 서지적 고찰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43, 82.

42) 발행인은 일본 파칭코 체인점 마루한(MARUHAN)의 창업자 한창우(韓昌祐)였다. 이진희가 한창우에게 찾아가 『삼천리』의 뒤를 잇는 잡지를 출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한창우가 사재를 털어 지원하며 잡지가 창간된다.

늘어나고 있다. 우리들은 젊은 세대에게 기대를 걸고 긴 호흡으로 노력해가 고자 한다.<sup>43)</sup>

창간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청구』는 한반도와 일본을 연결하는 매개이자 중간자 역할을 지향했다. 특히 18세기 조선과 일본을 연결했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를 언급하며 한반도와 일본이 구축해야 할 관계의 긍정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남북대화와 통일이라는 청사진을 그렸다. 지면에서는 한일관계는 물론 전후 보상 문제, 재일코리안의 법적 지위, 교육과 같은 재일코리안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이처럼 『청구』는 1980-90년대 재일코리안 사회를 대표하는 지면이었으며 한국, 일본, 재일코리안의 매개적 역할을 지향했다.

『삼천리』, 『민도』, 『청구』는 1975년부터 1996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일코리안 문화매체로서의 명맥을 이어가며 동시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이와 동시에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에게 관심을 보이고 교류를 수행했다.

## 2. 고려인을 향한 재일코리안 사회의 관심과 현황

1970년대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는 정주의식이 확산되며 일본에서의 삶을 모색했다. 동시에 한반도와 일본을 넘어 보다 글로벌한 시각에서 재일코리안을 바라보기 위해 세계 각지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러한 관심은 지면에 수록된 기사 현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삼천리』, 『민도』, 『청구』에 수록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 관련 기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43) 編集部 (1989). 創刊のことば. 季刊靑丘, 1. 9.

&lt;표 1&gt; 『삼천리』에 수록된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 관련 기사

연번	호수(발행일)	작가	제목	잡지 내 코너
1	6(1976.05.01.)	오자키 히코사쿠 (尾崎彦朔)	중앙아시아의 조선인 (中央アジアの朝鮮人)	일반기사
2	17(1979.02.01.)	하라 데루유키 (原暉之)	극동 러시아의 조선독립운동과 일본 (極東ロシアにおける朝鮮獨立運動と日本)	일반기사
3	36(1983.11.01.)	운노 미네타로 (海野峯太郎)	만주 시베리아의 조선인 (「滿州」・シベリアの朝鮮人)	일반기사
4	41(1985.02.01.)	이노우에 아키히코 (井上昭彦)	사할린 잔류조선인의 귀환의 길을 (サハリン残留朝鮮人に帰還の道を)	일반기사
5	44(1985.11.01.)	이노우에 아키히코 (井上昭彦)	사할린을 방문하고 (サハリンを訪れて)	특집 해외재주조선인의 현재 (特集 海外在住朝鮮人の現在)
6		강재인(姜在彦)·기무라 히데스케 (木村英亮)	대담소련 중앙아시아의 조선인 (対談 ソ連中央アジアの朝鮮人)	
7		시가 마사루 (志賀勝)	중앙아시아로 내몰린 사람들-스탈리니즘과 조선인 (中央アジアへ追われた人びと—スターリニズムと朝鮮人)	
8	46(1986.05.01.)	다카기 겐이치 (高木健一)	사할린 잔류 조선인 문제 (サハリン残留朝鮮人問題)	일반기사
9	50(1985.05.01.)	하라 데루유키 (原暉之)	블라디보스톡 신한촌 (ウラジオストクの新韓村)	가교(架橋)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삼천리』는 창간호부터 중간호까지 총9건의 고려인 관련 기사를 수록했다. 1,700여건의 기사 중에 재외동포에 관련된 기사가 51건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 관련 기사가 9건이었다는 사실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향한 관심이 1970년대에 비로소 시작된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고려인 관련 기사는 여행기, 수필, 논문을 비롯해 사진, 지도 등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주제면에서도 일제강점기 신한촌(新韓村)의 형성과 항일독립운동, 사할린을 매개한 조선인 귀환문제,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사할린 성모단, 고려인의 삶과 현재 등 다양한 기사가 발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4호에서는 ‘해외재주조선인의 현재(特集 海外在住朝鮮人の現在)’ 특집을 구성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현재를 조명했다. 특집에서 편집위원 강재언은 “우리들 재일조선인인 동포가 소련에 있든 중국에 있든 저류에 피가 흐르는 연대감이 있고 그들이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가 신경이 쓰인다”<sup>44)</sup>고 말하며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향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이와 같은 『삼천리』의 구성에서 1970-80년대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고려인을 향한 관심의 구체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고려인과의 교류는 1980년대 후반, 『민도』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다음의 표는 『민도』에 수록된 고려인 관련 기사 현황이다.

<표 2> 『민도』에 수록된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 관련 기사

연번	호수(발행일)	작가	제목	잡지 내 코너
1	1(1987.11.15.)	에가와 다쿠 (江川卓)	소련 - 혁명적 모델의 재건 (ソ連-革命的モラルの建て直し)	세계계평 (世界季評)
2	3(1988.05.15.)	쓰지모토 기요미 (辻元清美)	사할린에 가지 않겠습니까? (サハリンへ行きませんか)	자유중(에세이) (自由鐘(エッセイ))
3		최건영 (崔建永)	소비에트 문학과 동양사상의 만남 (ソビエト文学と東洋思想の出会い)	세계문학의 속의 조선① (世界文学の中の朝鮮①)
4	5(1988.11.15.)	최건영 (崔建永) 마키세 아키코 역(牧瀬暁子訳)	재소조선인문학과 율리 킴 (在ソ朝鮮人文学とユーリイ・キム)	평론(評論)
5		이회성 (李恢成)	사할린 재방 (サハリン再訪)	기행(紀行)
6		오다 마코토 (小田実)	나의 카자흐 (わがカザフ)	
7	6(1989.02.15.)	박형주 (朴亨柱)	해방 이후의 재사할린 조선인 (開放以降の在サハリン朝鮮人)	사할린으로부터의 리포트 (サハリンから

44) 姜在彦 (1985), ソ連中央アジアの朝鮮人. 三千里, 44. 29.

				의レポート)
8	7(1989.06.15.)	박형주 (朴亨柱)	선주조선인의 생활과 교육 (先住朝鮮人の生活と教育)	사할린으로부터의 리포트② (サハリンからのレポート②)
9	8(1989.09.05.)	박형주 (朴亨柱)	재사할린 조선인과 분단조국 (在サハリン朝鮮人と分断祖国)	사할린으로부터의 리포트③ (サハリンからのレポート③)
10	9(1989.12.15.)	김찬정(金贊汀)· 이회성(李恢成)	실크로드의 조선인 /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シルクロードの朝鮮人 / 中央アジアの高麗人)	그라비아 (グラフィア)
11		김찬정 (金贊汀)	실크로드의 조선인(상) (シルクロードの朝鮮人(上))	르포르타주 (ルポルタージュ)
11	10(1990.03.20.)	박형주 (朴亨柱)	사할린 조선인의 비극과 현재 (在サハリン朝鮮人の悲劇と現在)	사할린으로부터의 리포트 최종회 (サハリンからのレポート 最終回)
12		김찬정 (金贊汀)	실크로드의 조선인(하) (シルクロードの朝鮮人(下))	르포르타주 (ルポルタージュ)

『민도』는 창간호부터 중간호까지 고려인을 향한 꾸준한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삼천리』, 『청구』에 비해 비교적 짧은 2년 4개월여의 기간 동안 총35건의 해외관련 기사를 수록했으며, 그 중 12건(34.2%)이 고려인 관련 기사였던 사실에서 고려인을 향한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도 사할린과 전후문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이주와 현재, 고려인 문학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룬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할린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전후 문제가 혼재된 재일코리안과 일본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었다. 때문에 『민도』는 창간호부터 사할린을 통해 일본의 전후책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의 배경에는 주필 이회성이 현 사할린 지역인 가라후토(樺太) 출신이라는 점과 디아스포라에 대한 편집진의 문제의식이

구체화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민도』에서 고려인과 디아스포라를 향한 집약된 형태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면, 1989년 창간된 『청구』에서는 보다 증가한 고려인 관련 기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청구』에 수록된 고려인 관련 기사 목록이다.

<표 3> 『청구』에 수록된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 관련 기사

연번	호수(발행일)	작가	제목	잡지 내 코너
1	1(1989.08.15.)	다카기 겐이치 (高木健一)	아직 끝나지 않은 ‘전후’·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과 재한피폭자문제에 관하여 (まだ終わっていない「戦後」—サハリン残留韓国・朝鮮人と在韓被爆者問題に関して)	일반기사
2	3(1990.02.15.)	하야시 이쿠 (林郁)	소련·중국에서 만난 사람들 (ソ連・中国で会った人びと)	특 집 - 중국·소련의 조선족 (特集—中国・ソ連の朝鮮族)
3		고지마 아쓰시 (小島敦)	서울·올림픽 후의 소련 (ソウル・オリンピック後のソ連)	
4		다카야나기 도시오 (高柳俊男)	페레스트로이카 속의 조선인 (ペレストロイカの中の朝鮮人)	
5		신연자(申娟子)	알마아타의 ‘고려사람’들 (アルマタの「高麗サラム」たち)	
6	4(1990.05.15.)	기모토 시게오 (木元茂夫)	다카기 겐이치 『사할린과 일본의 전후책임』 (高木健一『サハリンと日本の戦後責任』)	서가 (書架)
7	7(1991.02.15.)	아에마 다카노리 (饗庭孝典)	소련·동구의 혁명과 동아시아 (ソ連・東欧の変革と東アジア)	일반기사
8		김경호 (金京鎬)	한국과 중국, 소련의 경제교류 (韓国と中国、ソ連の経済交流)	
9	8(1991.05.01.)	정상진 (鄭尙進)	소련 조선인 문단의 변천 (ソ連朝鮮人文壇の変遷)	일반기사
10		후지 고노스케 (藤井幸之助)	박형주·민도사 편집 『사할린으로부터의 리포트』 (朴亨柱・民濤社編集『サハリンからのレポート』)	서가 (書架)
11	10(1991.11.15.)	김·겔만·편집부 (キム・ゲルマン・編集部)	재소조선인은 지금-김·겔만씨에게 묻다 (在ソ朝鮮人は今——キム・ゲルマン氏にきく)	인터뷰 (インタビュー)

12		이소가이 지로 (磯貝治良)	사진집 증언하는 풍경, 증언 사할린조선인 학살사건 (서평) (証言する風景) 刊行委員会編『写真集『証言する 風景』』 林えいだい『証言・樺太朝鮮人虐殺事件』)	서가 (書架)
13	11(1992.02.15.)	오카 나쓰코 (岡奈津子)	구소련에서 만난 조선인 (旧ソ連で出会った朝鮮人)	르포 (ルポ)
14	12(1992.05.15.)	아에바 다카 노리 (饗庭孝典)	소련 붕괴 후의 한반도-국제정세와 남북관계 (ソ連邦崩壊後の朝鮮半島—國際情勢と南北 関係)	일반기사
15		하야시 에이타 이 (林えいだい)	강제연행기록 여행6-극한의 사할린 (強制連行記録の旅6—極寒のサハリン)	
16	14(1992.11.15.)	오누마 야스아 키 (大沼保昭)	자료로 보는 사할린 기민(1) (資料でみるサハリン棄民(1))	인터뷰 (インタビュー)
17	15(1993.02.15.)	니콜라이 부가 이 (ニコライ・ブ ガイ)	극동으로부터의 조선인강제이주 (極東からの朝鮮人強制移住)	일반기사
18		가와무라 미나 토 (川村湊)	사할린 문학기행 (サハリン文学紀行)	
19		오누마 야스아 키 (大沼保昭)	자료로 보는 사할린 기민(2) (資料でみるサハリン棄民(2))	인터뷰 (インタビュー)
20		운노 후쿠즈 (海野福寿)	자서를 말하다 『청일·러일전쟁』 (自著を語る 『日清・日露戦争』)	서가 (書架)
21	16(1993.05.15.)	라브렌티 송 (ラヴレン ティー・ ソン)	구소련연방의 조선인은 지금 (旧ソ連邦の朝鮮人は今)	일반기사
22		오누마 야스아 키 (大沼保昭)	자료로 보는 사할린 기민(3) (資料でみるサハリン棄民(3))	인터뷰 (インタビュー)
23	17(1993.08.15.)	와다 하루키 (和田春樹)	미소점령과 조선의 분단 (米ソ占領と朝鮮の分断)	일반기사
24	19(1994.02.15.)	쓰노타 후사코 (角田房子)	『슬픔의 섬 사할린』을 다 쓰고 (『悲しみの島サハリン』を書き終えて)	수필 (隨筆)

		미쓰요시 누마노 (沼野充義)	러시아문학의 다민족적 세계-러시아문학은 러시아만의 것인가 (ロシア文学の多民族の世界—ロシア文学はロシア人だけのものか)」	일반기사
25		오카 나쓰코 (岡奈津子)	구소련의 조선인지식의 고뇌 (旧ソ連の朝鮮人知識人の苦悩)」	
26		다카마쓰 시게루 (高松茂)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カザフスタンの高麗人たち)」	
27		유효종 (劉孝鐘)	구소련 중앙아시아의 조선인사회 - 카자흐스탄에서의 국제 워크숍에서 (旧ソ連中央アジアの朝鮮人社会—カザフスタンでの国際ワークショップから)」	
28		시가 마사루 (志賀勝)	블라디보스톡 별견-강제추방된 조선인이 돌아오다 (ヴラジヴォストーク瞥見—強制追放された朝鮮人が帰ってきた)」	
29	20(1994.05.15.)	오누마 야스아키 (大沼保昭)	자료로 보는 사할린 기민(4) (資料でみるサハリン棄民(4))	인터뷰 (インタビュー)
30	21(1995.02.15.)	다나카 미즈에 (田中水絵)	사할린 잔류조선인의 현재-1993-94년 여름 (サハリン残留朝鮮人のいま—一九九三~九四年夏)」	일반기사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청구』는 창간호부터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과 고려인에 관심을 보였으며 총30건의 관련 기사를 수록했다. 특히 3호에서는 ‘중국·소련의 조선족(中国·ソ連の朝鮮族)’ 특집을 구성해 고려인과 조선족을 함께 다루었다. 『청구』가 다양한 재외동포 중에서도 특히 고려인에 많은 관심을 나타낸 것은 다른 재외동포 기사와의 비교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청구』에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제외하고 총23건의 해외 관련 기사가 수록되었다. 대상을 특정해보면 “중국 15건, 미국 6건, 독일 2건으로 소수의 국가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에 수록된 총 53건의 외국관련 기사 중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관련 기사가 56.6%(30건)였다는 점에서 고려인에 대한 『청구』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sup>45)</sup> 『청구』에서의 고려인 담론은 주로 일본의 전후책임 보상을 추구하고 소련의 조선



인 중앙아시아 강제이주를 비판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밖에도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일본에 인편이 오가는 직접 교류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삼천리』, 『민도』, 『청구』는 1970-90년대 당시 고려인 사회에 꾸준한 관심을 나타냈으며 다양한 담론을 발신했다. 그렇다면 각 지면에서 재일코리안과 고려인의 ‘문화교류’의 양상은 어떻게 구체화되었을까?

### III.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탈영토화 / 재영토화

#### 1. 생활양식의 변천과 문화로 연결되는 디아스포라

『삼천리』, 『민도』, 『청구』에서는 재일코리안과 고려인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역사와 디아스포라의 현재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1976년 5월, 『삼천리』 6호에서 오자키 히코사쿠(尾崎彦朔)<sup>46)</sup>는 「중앙아시아의 조선인(中央アジアの朝鮮人)」으로 고려인 사회의 생활상을 소개한다. 오자키는 1969년 여름, 연구과제 조사를 위해 약 1개월간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방문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오자키는 김병하<sup>47)</sup>의 이름을 붙인 집단농장에 방문한다. 다음 인용문에서는 농장의 구성과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북극성’이라고 불렀던 순(純)조선인 콜호즈였지만 몇 해 전에

45) 이영호 (2021). 냉전과 해빙의 시대 재일코리안과 고려인 디아스포라 - 재일코리안 잡지 청구(靑丘)의 기사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15.2, 20-21.

46) 당시 오사카시립대학(大阪市立大学) 경제학연구소(経済学研究所) 교수였다.

47) 기사 본문에서 오자키는 김병하를 소련연방의 노동영웅훈장을 2회 수상했으며 레닌훈장을 5회 수상한 빛나는 공적을 쌓은 인물이라 소개하였다. 이밖에도 2019년 한국에서는 김병하를 1956년에 한글 교과서를 만든 인물로 소개했다. (尾崎彦朔 (1976). 中央アジアの朝鮮人, 三千里, 6, 124.)

인접한 군소 콜호즈와 병합해 지금은 러시아인, 우즈베크인, 카자흐인, 우크라이나인, 키르기스인 등 일곱 민족에 의해 구성되어있다. 설명에 의하면 오늘날 순수한 조선인 콜호즈는 거의 없다는 것. 하지만 핵심민족으로 조선인이 있는 곳은 통상적으로 카레이스키 콜호즈(조선인 콜호즈)로 통하고 있다.<sup>48)</sup>

과거 집단농장은 고려인만으로 구성되었지만 현재는 주변에 인접한 여러 민족이 결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 각 소수민족이 독립적으로 운영했던 콜호즈가 1970년대에는 민족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민족 통합을 상징하기 위해 김병하의 흉상을 세워 기념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다양한 소수민족간의 교류로 형성되는 경제 생활권과 재영토화된 디아스포라의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 흥미로운 것은 고려인 사회가 본국의 문화로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자키는 콜호즈 방문 이후 농장장 최씨의 가정으로 향한다. 오자키는 러시아풍으로 지어진 건물에서 김치를 확인한다.<sup>49)</sup> 이와 같은 생활양식에서 본국과 거주국의 문화가 혼재된 고려인 가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6호에서 윤노 미네타로(海野峯太郎)의 「만주 시베리아의 조선인(『滿州』・シベリアの朝鮮人)」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윤노는 중국에서 출발해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열차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거주 조선인<sup>50)</sup>들을 만난다. 러시아 현지에 도착해서는 하바로브스키 시장의 고려인을 소개한다. 고려인들은 밭에서 기른 토마토와 오이를 팔며 경제활동을 한다. 시장에서는 김치를 팔고 물건을 구입한 손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모국어로 인사하며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sup>51)</sup> 이러한 모습에서 음식과 모국어로 대표되는 본국의 문화로 거주국에서 민족성을 드러내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48) 尾崎彦朔 (1976). 中央アジアの朝鮮人. 三千里, 6, 124.

49) 尾崎彦朔 (1976). 中央アジアの朝鮮人. 三千里, 6, 128.

50)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함에 따라 조선족, 고려인 구분을 두지 않음.

51) 海野峯太郎 (1983). 『滿州』・シベリアの朝鮮人. 三千里, 36, 93.

44호에 수록된 이노우에 아키히코(井上昭彦)의 「사할린을 방문하고(サハリンを訪れて)」에서도 고려인 사회의 생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노우에는 1985년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소협회홋카이도연합회(日ソ協会北海道連合会)가 기획한 4회 <홋카이도일소우호친선 ‘민족의 배’(北海道日ソ友好親善「民族の船」)>를 통해 사할린에 방문한다. 일정 중 이노우에는 유지노사 할린스크의 바자르(bāzār)(노천시장)를 방문한다. 이때 시장에서 김치, 데친 고사리, 아이누 양파 등의 농작물을 판매하고 있는 고려인 여성을 발견한다. 이때 이노우에를 발견한 여성은 모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조선말 하십니까?”라며 말을 건넨다. 하지만 이노우에가 자신은 일본인이라 밝히자 일본어로 응대한다.<sup>52)</sup> 이 대목에서 사할린에서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고려인이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를 활용해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려인의 생활양식에서 본국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거주국의 생활양식을 따르는 디아스포라의 혼종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삼천리』의 고려인 담론에서 주목할 사항은 지면에 수록된 고려인 관련 기사 전부가 ‘일본인’에 의해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1970-80년대는 연구 목적이나 취재, 특정 신분을 제외하고는 해외출국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특히 재일코리안의 경우 국적문제로 출국자체가 힘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삼천리』는 출국이 가능하고 현지를 경험한 일본인 필자를 통해 고려인 사회를 재일코리안 사회에 소개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한정은 “필자 다수가 ‘일본인’인 점은 오늘날 다수의 한국인들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취재하고 연구하는 상황에서 보자면 이례적이며, 일본인에 의해 생산된 담론, 재일코리안 사회에 발신되었던 점은 당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현황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귀중한 방식”<sup>53)</sup>이라 평가했다.

본국의 문화를 활용한 고려인 사회의 모습은 『민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

52) 井上昭彦 (1985). サハリンを訪れて. 三千里, 44, 92.

53) 이한정 (2021). 재일조선인 잡지 『계간 삼천리』와 코리안 디아스포라. 일본어문학, 89, 174-175.

다. 이회성은 1988년 8월, 사할린에 직접 방문해 고려인 사회와 교류한다.<sup>54)</sup> 『삼천리』에서 고려인과의 교류가 전적으로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민도』에서는 재일코리안과 고려인의 ‘직접 교류’라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 이회성은 고려인 사회에서 드러나는 본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소개한다.

8월 21일, 22일 아침, 유지노사할린스크의 중심가에 있는 ‘문화휴식공원’에는 각지에서 조선인 남녀 노약자들이 가슴 설레이며 모여들었다. (중략) 민족경기인 씨름과 그네뛰기도 있었다. 민족씨름에서 우승한 이 왜체 슬라브군은 황소 한 마리를 탔다. 그리고 민족색을 고양시키는 종목으로 바둑 시합도 있었고 조선 민족 옷 콩쿠르도 진행되었다. 젊은 여성들은 치마저고리 모습으로 무대에 나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sup>55)</sup>

이회성이 유지노사할린스크를 방문한 8월 21-22일은 25년 만에 군중놀이 행사가 개최된 날이었다. 고려인 상당수는 행사에 참가해 한복을 입고 춤을 추고, 바둑을 두거나 씨름과 그네뛰기를 한다. 이회성은 씨름시합 도중 한 고려인이 넘어져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하며, 민족경사가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며 안타까워한다. 이밖에도 북한예술단이 해방 이후 처음으로 유지노사할린스크에 방문해 약 1만 명의 고려인이 모인 사실을 전하며, “한국에서도 러시아에 민속놀이를 비롯한 마당극과 대중가요를 소개한다면 사할린 동포의 삶이 문화적으로 윤택해질 것”이라 조언한다.<sup>56)</sup> 이와 같이 고려인들은 거주국에서 민족문화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특성에 대해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타국에서도 본국을 향한 애정과 신뢰를 간직하고 아낌없이 지지를 보내는 존

54) 당시 이회성이 재일코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할린에 직접 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현 사할린 지역인 가라후토(樺太) 출신이라는 점, 조부모 성모라는 인도상의 명목이 없었더라면 소련방문 비자를 받을 수 없었을 거라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회성 (1988.10.3). 인 땅에서 부르는 방향의 노래 사할린 거주 우리 동포들을 찾아 1. 한겨레신문, 5.)

55) 李炳成 (1988). サハリソ再訪 民涛, 5, 233-234.

56) 李炳成 (1988). サハリソ再訪 民涛, 5, 245.

재를 '원거리 민족주의자로 지칭했다.'<sup>57)</sup> 즉, 고려인의 모습에서 디아스포라의 원거리 민족주의를 확인할 수 있다.

『창구』에서도 유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3호 '중국·소련의 조선족(特集—中国·ソ連の朝鮮族)' 특집에서 다카야나기 도시오(高柳俊男)는 「페레스트로이카 속의 조선인(ペレストロイカの中の朝鮮人)」을 통해 고려인 사회의 모습을 전한다.

언어와 마찬가지로 조선민족의 풍습, 전통, 문화의 재생에도 뜨거운 시선이 쏠려있다. 최근 일 년 동안 소련에서 지금까지 간행된 조선어문학서의 전람회(1월 4일호, 1988년까지 간행된 문학서는 총 40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각종문화사절의 내방, 8·15 해방절을 기념한 기념행사(8월 16일호) 등이 있다. 이것들 대부분이 재소조선인 사상 최초로 특필된 것에 재소조선인이 종래 놓여있던 입장과 당의 민족정책의 변명에 의한 민족문화로의 희구(希求)의 현재화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sup>58)</sup>

카자흐 공화국의 고려인 사회에서는 민족전통에 뜨거운 관심을 보인다. 북한에서는 카자흐스탄에 인원을 파견해 고려인과 직접 교류한다. 나아가 문화를 통한 탈/재영토화 현상이 구현된다. 3호에서 고지마 아쓰시(小島敦)는 「서울·올림픽 후의 소련(ソウル・オリンピック後のソ連)」을 통해 카자흐스탄 거주 고려인의 음식문화를 소개한다.

중앙아시아의 바자르(bāzār)에 가면 반드시 조선계 사람들이 가게를 낸 코너가 있고 김치를 시작으로 일본인에게도 친숙한 「조선의 맛」을 팔고 있다. (중략) 조선요리 레스토랑을 개점한 것은 약 3개월 전으로 '조선문화를 요리의 면으로 나타내고 싶다'는 것이 개점한 동기 중 하나였다.

이점장에 의하면 요리사를 북한으로 파견해 "특훈"했고 조선요리 외에도 중국요리의 요소도 넣었다.<sup>59)</sup>

57) Anderson, B. (1992). The new world disorder. UK: New Left Review, 326-327.

58) 高柳俊男 (1990). ペレストロイカの中の朝鮮人. 靑丘, 3, 57.

59) 小島敦 (1990). ソウル・オリンピック後のソ連. 靑丘, 3, 48.

인용문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한식전문점 <도라자>를 운영하는 고려인의 사례를 소개한다. 1970-80년대 고려인이 본국에 파견가기는 쉽지 않았지만, 1990년대에는 고려인이 북한 현지에서 요리를 배우고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와 본국의 음식을 판매한다. 나아가 단순한 음식 요리를 넘어 중국식 요소를 가미해 거주국에 특화된 요리를 만드는 재영토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국과 거주국을 오가는 디아스포라의 직접 교류 현상과 본국의 문화를 탈영토화하여 거주국에서 재영토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호(1994.02.)에서 고송무(高松茂)는 「카자흐스탄의 고려인(カザフスタンの高麗人たち)」을 통해 1993년 카자흐스탄 콕세타우에서 경험한 고려인 사회의 문화를 소개한다.

콕세타우에는 고려인 약 천 여명이 사는데 1991년, 1993년 2회에 걸쳐, 250명이 모여 조선식의 정월을 기념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한복을 만드는 법, 입는 법을 몰라 고생하는 고려인의 생생한 모습을 녹화된 비디오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하며 고려인들이 본국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알려준다.<sup>60)</sup>

콕세타우의 고려인들은 전통의복인 한복을 만들어 입고 본국의 명절을 기념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거주국에서 민족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요리와 한복 등 본국의 문화를 거주국에서 변용해 활용하는 고려인 사회의 모습에서 디아스포라의 탈/재영토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고려인 사회에서는 문화의 탈/재영토화 현상이 나타나지만 한편으로는 디아스포라에게 ‘민족전통’이 무엇인지 논의를 이어간다. 『청구』 19호에서 오카 나쓰코(岡奈津子)<sup>61)</sup>는 「구소련의 조선인지식의 고뇌(旧ソ連の朝

60) 高松茂 (1994). カザフスタンの高麗人たち. 靑丘 19, 102.

61) 일본의 신영역연구센터·거버넌스 연구 그룹장(新領域研究センター ガバナンス研究グループ長)으로 재직하고 있다. 전공분야는 카자흐스탄, 내셔널리즘, 이민이다.

「鮮人知識人の苦悩」」를 통해 1993년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이산민족과 다민족공생체의 미래상을 주제로 개최된 워크숍을 소개한다. 워크숍에서는 재일코리아인, 미국인, 일본인과 러시아, 우즈베크, 타지키스탄 출신 고려인 등이 참여한다. 워크숍에서 발레리 한이라는 고려인은 디아스포라에게 민족전통이란 무엇인지 본질적 의문을 제기한다.

조선인단체의 지도자가 ‘민족적 부흥’이라고 할 때 보통은 전통과 관습, 언어 등을 가리킨다. 그 때 이 프로세스는 전제가 없으며 불가결하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구소련의 조선인 조부의 문화를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되어야만 하는 것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극동에 존재했던 농촌문화이다. 하지만 전통사회에 기능했던 그것은 공업화, 도시화를 걸친 현재 이미 단순한 민속학적 성격을 머금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인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전통적인 것에 더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문화에도 의거한 새로운 문화인 것은 아닌가?<sup>62)</sup>

인용문에서는 문화가 본국의 것을 무조건적으로 가져와 되살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과거의 농촌문화로 회귀해야 하는 것이냐며 반문한다. 나아가 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 모국어를 모르는 후속세대는 민족이 아닌 것이냐며 무조건적으로 민족과 전통문화를 규정하는 태도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를 통해 디아스포라가 일상화된 시대에 민족과 문화의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발레리는 본국의 전통과 거주국의 문화 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탈/재영토화된 문화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1990년대 고려인 사회는 “독립국가연합의 정치경제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의 보편성과 세계성을 근간으로 ‘소수민족의 자아인식’과 ‘혈연적인 조국’을 향한 민족의식이 대두”<sup>63)</sup> 된 시기였으며 본국과 거주국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62) 岡奈津子 (1994). 旧ソ連の朝鮮人知識人の苦悩 青丘, 19, 96.

63) 김환기 (2021). 구소련권 고려인 사회의 역사문화지형과 민족의식: 매체/학교/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코기토, 95, 51.

게 재편되는 시기였다. 즉, 고려인의 모습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기존의 사고를 부정하고 특정 국적, 언어,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디아스포라의 탈국가적 사고를 확인할 수 있다. 오카 역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조선문화를 유지 혹은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본국의 조선인의 단순한 신분이 아닌 이들에게 민족 문화란 어때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물을 때가 된 것은 아닐까”<sup>64)</sup>라고 말하며 디아스포라에게 있어서 문화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sup>65)</sup>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는 각 시대별로 다양한 형태로 고려인 사회와 디아스포라 문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형태적으로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일본인을 매개로 교류가 수행되었다면, 1980년대 후반부터는 재일코리안과 고려인이 상호 거주국에 방문하는 등 시대에 따른 교류형태의 다각화 양상을 보였다. 그렇다면 재일코리안과 고려인의 교류에서 어떠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까?

## 2. 비교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는 상이한 체제에서 살아가는 고려인의 생활양식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민족 정체성, 거주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같은 측면을 비교했다. 『삼천리』에서는 고려인의 ‘이름’에 주목해 일본과 소련의 소수민족 정책을 비교한다. 36호에서 운노는 고려인들이 이름을 소개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어째서 러시아인의 이름을 가져야만 하는 걸까? 조선명으로는 곤란한 어떠한 사정이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소련 사회의 모순의 한 단의 얼굴을 엿보고

64) 岡奈津子 (1994). 旧ソ連の朝鮮人知識人の苦悩 青丘, 19. 101.

65) 오카 나쓰코는 고려인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2006년에 저서 『중양아시아의 조선인 - 조상의 땅을 멀리 떠나(中央アジアの朝鮮人—父祖の地を遠く離れて)』(東洋書店)를 출간하며 일본에 고려인의 실상을 알렸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에서 이른바 통명 사용을 상기시키는 사태이다.<sup>66)</sup>

운노는 자신을 러시아식 이름으로 소개하는 고려인의 모습에서 일본의 통명을 떠올린다. 러시아에서의 통명은 일본식 통명과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일본에서는 통명을 지을 때 자신이 재일코리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성(姓)과 이름 모두 일본식으로 바꾼다. 반면 고려인들은 자신의 본래 성은 유지하면서 이름만 러시아식으로 지으며 자신이 고려인임을 드러낸다.<sup>67)</sup> 통명은 일본과 소련의 소수민족 정책이라는 보다 본질적 차원으로 연결된다.

이름을 통한 비교는 44호의 대담 「소련중앙아시아의 조선인(ソ連中央アジアの朝鮮人)」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천리』의 편집위원 강재언은 요코하마국립대학(横浜国立大学) 교수 기무라 히데스키(木村英亮)<sup>68)</sup>와 대담을 진행한다. 대담에서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1985년) 일본에 약 70만, 소련에 40만 명의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전한다. 이밖에도 당시 정보가 거의 없었던 고려인 이주의 역사와 인구통계,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레닌기치』<sup>69)</sup> 소개 등 고려인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재일코리안 사회에 소개한다.<sup>70)</sup> 이 과정에서 강재언과 기무라는 재일코리안의 이름과 국적을 다른 코

66) 海野峯太郎 (1983). 「滿州」・シベリアの朝鮮人. 三千里, 36, 92.

67) 언어학자 고송무(1947-1993, 핀란드 헬싱키 국립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전 교수)는 고려인의 이름 짓는 시기를 세 단계로 구분했다. 1. 전통적으로 한국식 이름을 짓던 시기(19세기 중반-1920년대), 2. 지배적인 전통방식에서 변화하는 시기(1920년대-1930년대), 3. 러시아식 이름이 점차 증가하는 시기(1930년대-1960년대). 고려인들은 이름 가운데 성씨에 가장 보수적인 면을 보였다고 설명했으며, 단음음절의 성이 많기 때문에 성 뒤에 가이를 붙이는 경우(아카이, 어카이)도 많다고 했다. 1930-40년대부터는 자신의 본래 한글 이름에 러시아식 이름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한다. (고송무 (1990). 소련의 한인들. 서울: 이론과실천, 66-69.)

68) 요코하마국립대학 교수. 1983년 일본에서 논문(木村英亮, ソ連中央アジア・カザフスタンの朝鮮人. 横浜国立大学人文紀要. 第一類, 哲学・社会科学, 29, 1-14.)을 발표하며 일본에 당시 고려인의 실상을 소개했다.

69) 『레닌기치』(1938.05-1991.12.31.)는 1923년 3월 1일 창간된 한인신문 『선봉』의 후속지이다. 1937년 조선인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정책 이후 카자흐스탄에서 창간된 소련 유일의 한글 전국신문이었다.

70) 姜在彦, 木村英亮 (1985). ソ連中央アジアの朝鮮人. 三千里, 44, 23.

## 리안 디아스포라와 비교한다.

강재언 : 재일조선인만은 조선적 혹은 한국적으로 되어 있어 즉, 해외공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 일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듯 하고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어째서 일본적이 아니냐고 묻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건 역시 일본과 조선과의 역사적인 관계가 크다. 예를 들어 소련에서도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각각의 국적을 취득하면서도 이름까지는 바꾸지 않는다. 하지만 재일조선인 중 이것까지 10만 명 정도 일본에 귀화하고 있지만 완전히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니 조선계 일본인이 아닌 완전히 일본적 일본인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다.<sup>71)</sup>

강재언은 미국, 중국, 소련에 거주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경우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기본이며 국적 취득 이후에도 본래 이름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반면 재일코리안의 경우 자신이 재일코리안임을 알 수 없도록 완전한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고 일본의 관계부처 역시 이를 권고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강재언은 재일코리안의 귀화가 ‘차별을 탈출하기 위한 귀화’라 설명한다. 즉, 소련은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소수민족 고유의 가치관, 관습, 언어를 부정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소수민족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귀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무라는 “일본의 국가정책에는 민족정책이란 것이 애초에 없으며, 일본사회 안에 소수민족이 있다는 것을 아주 싫어해 귀화한다면 완전한 일본인화를 바라는 것이 된다”<sup>72)</sup>고 말하며 일본의 소수민족 정책이 동화 혹은 배타의 양자택일 문제라 설명한다. 나아가 미국, 중국, 소련과 재일코리안은 경우가 다르다 말하며 일본의 소수민족 정책을 비판한다. 이와 같이 『삼천리』에서는 재일코리안과 고려인의 이름을 통해 일본과 소련의 소수민족 정책을 비교하고 일본을 비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삼천리』에서는 재일코리안과 고려인의 민족 개념을 비교한

71) 姜在彦, 木村英亮 (1985). ソ連中央アジアの朝鮮人. 三千里, 44. 32.

72) 姜在彦, 木村英亮 (1985). ソ連中央アジアの朝鮮人. 三千里, 44. 32.

다. 6호에서 오자키는 콜호즈 방문 당시 경험한 고려인의 의식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조선인의 소련화는 기정사실이며 그 형식은 아마도 ‘러시아화’를 우즈베크와 그 외 주변의 여러 민족과 함께 견고 있다. (중략) 자신들을 ‘소련인’이라고 했을 때, 이는 소수민족인으로서 ‘러시아’에 속하면서 나아가 ‘소련인’의 의식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반면 러시아 민족 자체도 여러 민족문화에 의해 보완되고 풍요로워지는 길을 걸으며 소련화되지 않을 수 없다”<sup>73)</sup>

인용문에서 고려인은 주변 소수민족과 함께 소련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며 민족에 대해 한층 유연한 사고를 보인다. 오자키는 이러한 상황을 ‘러시아화’, ‘소련화’라 설명하며 소련의 문화가 주변 소수민족의 문화로 인해 풍요로워진 다 말하며 디아스포라 문화의 가치를 논한다. 44호의 대답에서는 고려인의 의식을 “소비에트의 일원으로 어떻게든 소련의 건설에 참가하고 있는가와 같이 논조면에서의 커다란 변화가 있다”, “조선인이라는 의식과 동시에 소련인이라는 의식도 강한 듯 하며 조선인에 한정되지 않고 소련의 경우 민족의식과 동시에 소비에트 인민이라는 의식이 있어 후자의 의식이 점점 강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sup>74)</sup>고 말하며 재일코리안과 고려인의 민족의식을 직접 비교한다. 이 대목에서 다민족사회가 일상화된 소련에서 고려인의 가치관과 의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다층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재일코리안과 고려인을 비교함으로써 동시대 디아스포라의 역사·생활·가치관 차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차이를 통해 거주국의 소수민족 정책 차이를 비교하고 일본의 정책을 비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일코리안과 고려인의 교류는 본국과 거주국에 어떠한 문화적 영향을 끼쳤을까?

73) 尾崎彦朔 (1976). 中央アジアの朝鮮人. 三千里, 6, 128-129.

74) 姜在彦, 木村英亮 (1985). ソ連中央アジアの朝鮮人. 三千里, 44. 30.

#### IV. 디아스포라의 문화지형과 본국 / 거주국으로의 영향력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는 고려인의 생활양식과 더불어 문화활동에 주목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발간된 한글신문 『레닌기치』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언어, 의식구조와 같은 다양한 층위의 요소들을 읽어내고자 했다. 하지만 당시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레닌기치』를 입수하기는 쉽지 않았으며, 『삼천리』의 편집위원들 역시 중앙아시아에 다녀온 일본인이 신문을 전달해줌으로써 실물을 접할 수 있었다. 이 사실에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고려인 사회의 동향 파악이 제한적이었으며, 일본인에 의해 간헐적으로 교류되었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1980년대 후반 발간된 『민도』에서는 재일코리안과 고려인의 직접 교류와 유형적 결과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민도』에서는 고려인 중에서도 특히 사할린의 고려인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한국과 일본에 관련 담론을 적극적으로 발신했다. 『민도』의 주필 이회성은 1981년 10월, 일본 사회당 홋카이도 본부가 주최한 제12차 사할린성모단을 통해 해방 이후 처음 사할린에 방문한다.<sup>75)</sup> 1988년 8월에도 사할린성모단에 참가해 고려인과 교류했으며,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한겨레신문』에 1988년 10월 3일부터 28일까지 한국어로 「언 땅에서 부르는 망향의 노래 사할린 거주 우리 동포들을 찾아」를 총16회 연재한다.<sup>76)</sup> 기사에서는 사할린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생성과 일본의 전쟁책임, 국적과 의식 같은 역사와 생활상 전반을 다루었다. 1988년 11월에는 연재를 엮어 『민도』 5호에 「사할린 재

75) 이회성은 사할린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1982년에 기행문 「사할린 여행(サハリンへの旅)」을 『군조(群像)』에 연재한다. 1983년에는 연재에 기반한 동명의 단행본 『사할린 여행(サハリンへの旅)』을 출간했다.

76) 『한겨레신문』의 기사수록일은 다음과 같다. (1화-1988년 10월 3일, 2화-10월 4일, 3화-10월 5일, 4화-10월 6일, 5화-10월 7일, 6화-10월 8일, 7화-10월 11일, 8화-10월 13일, 9화-10월 14일, 10화-10월 15일, 11화-10월 18일, 12화-10월 20일, 13화-10월22일, 14화-10월25일, 15화-10월 26일, 16화-10월 28일)

방 77)을 일본어로 수록하며 한일 양국에 고려인 담론을 발신했다.<sup>78)</sup> 다음은 『한겨레신문』과 『민도』의 기사 중 일부이다.



<그림 1> 『한겨레신문』 1988년 10월 4일자에 수록된 이희성의 기사 중 일부



<그림 2> 『민도』 5호에 수록된 사할린 군중놀이 풍경

이밖에도 『민도』 6호부터 10호에는 고려인 박형주(朴亨柱)<sup>79)</sup>가 「사할린 으로부터의 리포트(サハリンからのレポート)」를 5회 연재한다. 박형주는 조선인의 사할린 이주 역사, 고려인 사회의 이데올로기 갈등, 고려인의 세부 구분과 계급, 재사할린 나호토카 재주조선총영사관 사진, 결혼과 같은 고려인 관련 내용 전반을 일본에 소개한다. 『민도』에 박형주의 기사가 연재된 배경에는 이희성이 1988년 8월 사할린 방문 당시, 박형주에게 사할린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부탁하고 박형주가 이를 수락하며 시작되었다.<sup>80)</sup> 하나 주목할 부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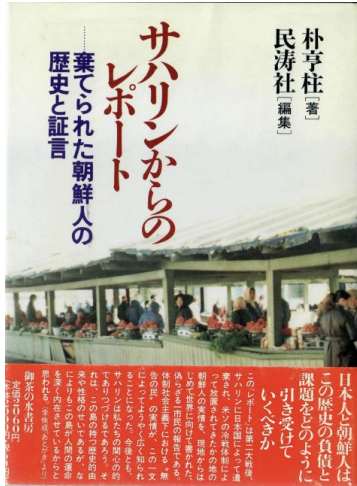
77) 李炳成 (1988). サハリン再訪. 民涛, 5, 228-254.

78) 한국과 일본의 연재 기사에 같은 이미지를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9) 박형주(朴亨柱)는 1929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출생했으며, 일제강점기였던 1936년 7월에 현 사할린 지역인 가라후토(樺太)로 이주한다. 해방 이후 북한 국적을 취득했으며 모스크바대학 졸업 이후 사할린으로 돌아온다. 추후 북한국적 취득이 문제가 되어 한국과 일본으로 출국하지 못하며 북한국적을 포기했다.

80) 李炳成 (1990). 座談会：在サハリン朝鮮人問題を考える. サハリンからのレポート. 東京：民涛社, 134-135.

박형주의 글이 단행본으로 출간된 사실이다. 1990년 12월 20일 <민도사>에서 는 단행본 『사할린으로부터의 리포트(サハリンからのレポート)』를 일본어 로 발간한다.



<그림 3> 박형주의 『사할린으로부터의 리포트(サハリンからのレポート)』표지

단행본은 총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도』에서의 연재를 1부로 엮고 2부 좌담회 「재사할린 조선인문제를 생각하다(在サハリン朝鮮人問題を考える)」를 추가해 발간했다. 좌담회에는 재일코리안과 일본인이 참여하여 사할린 문제를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닌 일제의 강제징용에서 비롯된 일본이 포함된 문제라는 시각에서 논의하였다.<sup>81)</sup> 또한 “박형주의 단행본이 잡지를 제외한 <민도사>의 유일한 출판물이었던 사실에서 고려인을 향한 당시 편집진의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sup>82)</sup> 이와 같은 『민도』의 활동을 통해 고려인을 향

81) 대담의 사회자는 이회성이었으며 참가자는 변호사 다카기 겐이치(高木健一), 가인(歌人) 간노 미치코, 도쿄대학 교수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후지여자대학 교수 오가사와라 마사루(小笠原克)였다.

한 재일코리안 사회의 뜨거운 관심과 한일 양국에 디아스포라 담론을 발신했던 문화 활동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에서는 보다 확장된 형태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다. 『민도』의 고려인 담론이 사할린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면 『청구』에서는 범위를 러시아, 중앙아시아로 확대했다. 또한 『삼천리』에서는 일본인을 통해, 『민도』에서는 사할린에서의 직접 교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청구』에서는 고려인이 일본으로 직접 건너오는 교류의 다각화 양상이 나타난다.<sup>83)</sup> 나아가 디아스포라 간 교류의 영향은 본국 한반도로 확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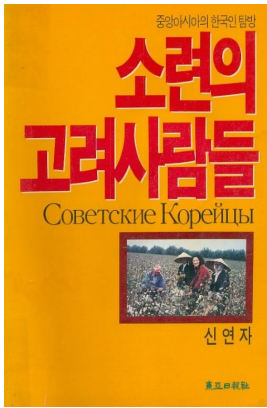
3호의 「알마아타의 ‘고려사람’들(アルマアタの「高麗サラム」たち)」에서는 한국에서 1988년 발행된 신연자(申娟子)의 저서 『소련의 고려사람들』<sup>84)</sup>의 일부가 번역된다.<sup>85)</sup> 신연자는 1950년대에 미국으로 이주한 재미코리안이며 1986년에 고려인 취재를 위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방문한다. 1986년 4월 1일에는 『동아일보』에 창간 66주년 기념특집 ‘소련의 고려사람들’을 발표했으며, 10월 1일에는 『동아일보』 20,000호 특집에 ‘소련을 가다’를 발표한다. 1988년 5월에는 연재를 묶어 한국에서 단행본 『소련의 고려사람들』을 발간한다. 『청구』 3호 「알마아타의 ‘고려사람’들」에서는 단행본 4장의 「중앙아시아의 한인 지성인들」 일부가 일본어로 번역된다. 아래 <그림 4>는 한국에서 발행된 단행본 표지이며 <그림 5>는 당시 『동아일보』의 광고이다.

82) 신재민 (2016). 재일조선인 잡지 『민도(民濤)』 연구. 석사 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209.

83)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를 고려인 사회에 처음 알린 김젤만은 1991년 11월 일본에서 편집부와 대담을 진행한다. 대담은 『청구』 10호에 「재소조선인은 지금-김·젤만씨에게 묻다(在ソ朝鮮人は今—キム・ゲルマン氏にきく)」라는 기사로 수록되었다. 고려인이 일본에 입국해 재일코리안과 직접대담을 했다는 점에서 1970-80년대와 상이한 교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84) 신연자 (1988) 소련의 고려사람들. 서울: 동아일보사

85) 단행본 4장 1절. 알마아타(Alma Ata), 2절. 타슈켄트(Tashkent), 3절 사마르칸트(Samarkand), 4절 부하라(Bukhara)의 내용 일부를 채록해 일본어로 번역했다. 『청구』에 수록된 기사에서는 절(節) 구분 없이 수록되었다.



<그림 4> 신연자, 『소련의 고려사람들』, 동아일보사 표지



<그림 5> 『소련의 고려사람들』 광고 (1989년 2월 11일자 『동아일보』 광고기사)

신연자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알마아타(Alma Ata),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Tashkent)에서 고려인을 만난다. 본문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만난 수의과 대학교수 황 미하일 바실리에비치와 그의 가족, 소련의 고려인 3세 판사 마카이, 언어학자 김 올라 박사와의 일화와 결혼, 민족, 언어 등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공유한다.<sup>86)</sup> 흥미로운 대목은 앞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국의 문화를 매개로 두 디아스포라의 접점이 형성된 점이다.

아늑한 방에는 이미 저녁상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곳 한인들은 흰밥, 된장국, 김치, 가자미, 명란젓, 고사리 나물 등 우리 고유의 음식을 먹는다고 알려주었다.<sup>87)</sup>

황마이 부총장은 신연자를 만나자 반가워하며 한식을 대접한다. 음식이라

86) 조선어를 할 줄은 모르나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으며 부모들은 한국인 간의 결혼을 원하고 있고 집에서는 한국식 생활방식과 예절을 지키고 있다면서 ‘조선극장’이나 가무단의 공연이 있으면 빼놓지 않고 간다는 이야기를 한다. (신연자 (1988) 소련의 고려사람들. 서울: 동아일보사, 72.)

87) 申娟子 (1990). アルマアタの「高麗サラム」たち. 靑丘, 3, 60.



는 본국의 문화로 고려인과 재미코리안의 공통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공과대학 부총장 박이반 교수를 만났을 때 “미역무침, 가지나물, 오이무침과 김치, 국시로 환영을 받았다”<sup>88)</sup>는 대목에서도 본국의 음식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집단 정체성 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인 사회에서는 재미코리안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미국의 교포생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우리말이 서투르다면서 러시아어로 여러 가지를 물어왔다. 캘리포니아의 한인수, 생활수준, 미국인과 한국인과의 관계, 한국 고유문화의 유지여부, 본국과의 교류여부 및 샌프란시스코의 ‘상향 한인인력개발원’은 어떤 일을 하는가 등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 보려고 했다.<sup>89)</sup>

박이반은 신연자에게 재미코리안의 생활을 물어본다. 특히 상이한 정치체제 하에서 디아스포라의 현실과 거주국과의 관계, 본국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이와 같은 고려인과 재미코리안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단행본이 출간되었으며, 한국에서 1988년 발행된 단행본이 1990년에 일본어로 번역돼 『청구』에 수록된 사실에서 재일코리안, 재미코리안, 고려인의 교류 흔적과 본국 한국을 경유해 형성되는 미국, 일본, 중앙아시아 디아스포라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디아스포라의 교류가 우리 민족을 넘어 거주국의 다양한 소수민족과도 나타났다는 점이다. 1991년 12월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각 국가에 분산된 고려인들은 다양한 소수민족이 모이는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청구』 19호에서 유효중(劉孝鐘)은 1993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된 워크숍 <이산조선민족과 다민족공생체의 미래상>을 소개한다. 다음은 워크숍 취지의 일부이다.

88) 申娟子 (1990). アルマアタの「高麗サラム」たち. 靑丘, 3, 61.

89) 申娟子 (1990). アルマアタの「高麗サラム」たち. 靑丘, 3, 61.

한반도 이외의 여러 국가, 지역에 분산되어 거주하는 조선민족의 민족적 생활의 모습과 다른 민족과의 관계의 현재를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 검토하고 각각의 ‘다민족사회의 공생의 건설적인 미래상’을 바탕으로 모색하는 취지였다.<sup>90)</sup>

워크숍에서는 재일코리안, 고려인 등 우리 민족 외에도 중앙아시아의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참여한다. 워크숍 이후에는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고려일보사로 함께 필드워크를 떠나는 등 디아스포라라는 공통점으로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 민족 간의 집단 정체성 형성은 물론 거주국의 다양한 디아스포라와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대해 윌리엄 사프란(William Safran)은 “집단 정체성은 정착지에서만 생겨나는 것도 고국과의 관련 안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동족과의 결속을 통해 생겨난다고 설명한다. 또한 공동운동체라는 자각으로 초민족적 연대가 생겨나며 이러한 정서를 공동책임감이라 명명했다.”<sup>91)</sup> 이러한 사례에서 우리 민족간의 교류를 넘어 거주국의 다양한 디아스포라와 초민족적 연대로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는 1970-90년대 고려인 사회에 주목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교류를 이어갔다. 재일코리안과 고려인의 교류를 확인함으로써 국경과 영역을 초월해 다중심적 세계를 만들어가는 모습과 다양한 민족들과 초국가적 민족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디아스포라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90) 劉孝鐘 (1994). 旧ソ連中央アジアの朝鮮人社会—カザフスタンでの国際ワークショップから. 青丘, 19, 120.

91) Prina, W. (2002). The place which is diaspora: citizenship, religion and gender in the making of chaotic transnationalism. UK: Journal of Ethic and Migration Studies 28(1), 121-122.

## V. 마치며

1970년대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는 재외동포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고려인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는 각 시대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인과 교류하며 『삼천리』, 『민도』, 『청구』 등의 매체로 담론을 형성했다.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는 고려인의 생활양식에 주목했다. 특히 교류과정에서 본국의 음식, 전통놀이와 같은 민족문화로 접점을 형성했다. 고려인 사회에서는 본국의 문화를 탈영토화하여 거주국에서 재영토화한다. 나아가 디아스포라에게 민족전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논의하며 본국과 거주국의 문화가 조화된 탈국가적 문화담론을 제시했다.

재일코리안과 사회에서는 고려인을 거울로 역사와 생활, 거주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소수민족 정책을 비판하고 본국과 거주국을 향한 디아스포라간의 가치관 차이, 다층적 정체성을 논한다.

디아스포라의 교류는 본국과 거주국의 문화적 영향력으로 이어진다. 이회성은 1988년 10월 한국에 「언 땅에서 부르는 망향의 노래 사할린 거주 우리 동포들을 찾아」를 연재하며 고려인을 본국에 소개한다. 11월에는 같은 기사를 『민도』에 일본어로 수록하며 한일 양국에 고려인 담론을 발신한다. 1990년 12월에는 고려인 박형주의 저서 『사할린으로부터의 리포트』가 출간되며 고려인의 현재와 일본의 전후책임에 대한 내용을 일본에 발신한다. 1990년 『청구』 3호에는 1988년 한국에서 출간된 신연자의 『소련의 고려사람들』 일부가 일본어로 번역되며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현재를 일본에 발신한다. 이와 같이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는 경계를 넘나드는 교류를 수행하며 본국과 거주국에 문화적 영향력을 발신했다.

1970-90년대 냉전과 소련 해체라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재일코리안들은 각 시대에 대응하는 교류형태의 다각화를 시도했다. 1970-80년대 초반까지 직접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본인을 통해 교류했으며, 1980년대 후반에

는 서로의 거주국으로 향하거나 제3국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활용해 교류를 이어갔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은 초국가적 교류를 바탕으로 본국과 거주국에 문화적 영향력을 발산하고 거주국의 소수민족과 집단정체성을 형성했다. 재일코리안과 고려인의 교류를 통해 국경과 영역을 초월해 다중심적 세계를 형성하는 디아스포라의 다이나미즘과 다양한 민족들과 초국가적 관계를 형성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재일코리안, 고려인, 삼천리, 민도, 청구

[참고문헌]

- 고송무 (1984). *쏘련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서울: 한국국제문화협회
- 고송무 (1990). *쏘련의 한인들*. 서울: 이론과실천
- 김환기 (2014). 『靑丘』와 재일코리안의 자기정체성 - 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 *일본연구*, 22, 155-178.
- 김환기 (2020). 구소련권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형성과 전개양상: 『선봉』/『레닌기치』/『고려일보』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82, 45-83.
- 김환기 (2021). 구소련권 고려인 사회의 역사/문화지형과 민족의식: 매체/학교/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코기토*, 95, 39-72.
- 산승모 (2014). 재일문예지 『민도(民濤)』의 기획과 재일문화의 향방 - 서지적 고찰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43, 79-100.
- 신연자 (1988). *소련의 고려사람들*. 서울: 동아일보사
- 신재민 (2016). *재일조선인 잡지 『민도(民濤)』 연구*. 석사 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 신재민 (2018). *재일조선인 잡지 『민도(民濤)』 연구*. *일본학보*, 115, 79-100.
- 이영호 (2021). 냉전과 해빙의 시대 재일코리안과 고려인 디아스포라 - 재일코리안 잡지 청구(靑丘)의 기사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15.2, 7-46.
- 이한정 (2021). *재일조선인 잡지 『계간 삼천리』와 코리안 디아스포라*. *일본어문학*, 89, 167-199.
- 이진희 (2003). *해협*. 서울: 삼인
- 이회성 (1988.10.3). 언 땅에서 부르는 망향의 노래 사할린 거주 우리 동포들을 찾아 1. *한겨레신문*, 5.
- 이회성 (1988.10.4). 언 땅에서 부르는 망향의 노래 사할린 거주 우리 동포들을 찾아 2. *한겨레신문*, 7.
- 이회성 (1988.10.5). 언 땅에서 부르는 망향의 노래 사할린 거주 우리 동포들을 찾아 3. *한겨레신문*, 7.
- 이회성 (1988.10.6). 언 땅에서 부르는 망향의 노래 사할린 거주 우리 동포들을 찾아 4. *한겨레신문*, 7.
- 이회성 (1988.10.18.). 언 땅에서 부르는 망향의 노래 사할린 거주 우리 동포들을 찾아 11. *한겨레신문*, 7.
- 정충실 (2020). NHK 한글강좌의 탄생 : 재일조선인과 일본사회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119, 135-164.

재일동포 연도별 인구추이 [발행년불명].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출처:

<https://www.mindan.org/kr/syakai.php>

홍래성 (2021). 일본이라는 아포리아와 마주하기 『축소지향의 일본인』, 그리고, 그 앞뒤에 놓인 것들, 인문과학, 121, 5-49.

Anderson, B. (1992). The new world disorder. UK: New Left Review, .326-327.

Prina, W. (2002). The place which is diaspora: citizenship, religion and gender in the making of chaordic transnationalism. UK: Journal of Ethic and Migration Studies 28(1), 121-122.

William, S. (1991).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Canada: Diaspora 1(1), 83.

井上昭彦(1985). サハリンを訪れて. 三千里, 44, 92.

海野峯太郎(1983). 「滿州」・シベリアの朝鮮人. 三千里, 36, 86-93.

小島敦(1990). ソウル・オリンピック後のソ連. 青丘, 3, 48.

岡奈津子(1994). 旧ソ連の朝鮮人知識人の苦悩. 青丘, 19, 94-101.

尾崎彦朔(1976). 中央アジアの朝鮮人. 三千里, 6, 122-131.

姜在彦, 木村英亮(1985). ソ連中央アジアの朝鮮人. 三千里, 44. 22-33.

高松茂(1994). カザフスタンの高麗人たち. 青丘, 19, 102.

申娟子(1990). アルマアタの「高麗サラム」たち. 青丘, 3, 60.

高柳俊男(1990). ペレストロイカの中の朝鮮人. 青丘, 3, 52-57.

編集委員会(1975). 創刊のことば. 季刊三千里, 1, 11.

編集委員会(1987). 終刊のことば. 季刊三千里, 50. 288.

編集部(1987). 卷頭言. 民涛, 1, 1.

編集部(1987). 編集後記. 民涛, 1, 334.

編集部(1988). 編集後記. 民涛, 2, 316.

編集部(1989). 創刊のことば. 季刊青丘, 1. 9.

朴亨柱(1990). サハリンからのレポート. 東京: 民涛社

李恢成(1988). サハリン再訪. 民涛, 5, 228-254.

劉孝鐘(1994). 旧ソ連中央アジアの朝鮮人社会—カザフスタンでの国際ワークショップから. 青丘, 19, 120.

## [국문초록]

1970년대부터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는 재외동포에 관심을 보였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고려인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는 시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인과 교류했으며 재일코리안 잡지 『삼천리』, 『민도』, 『청구』를 통해 구체적 교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는 고려인의 생활양식에 주목했으며 교류 과정에서 본국의 음식, 전통놀이 등의 민족문화로 접점을 형성했다. 고려인 사회에서는 본국의 문화를 탈영토화하여 거주국에서 재영토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나아가 디아스포라에게 민족전통이란 무엇인지를 논하며 본국과 거주국의 문화가 조화된 탈국가적 문화담론을 제시한다.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는 고려인을 거울로 서로의 역사와 생활을 비교하고 본국과 거주국을 향한 디아스포라의 가치관 차이, 다층적 정체성을 확인한다. 나아가 일본과 소련의 소수민족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일본을 비판한다. 디아스포라의 교류는 본국과 거주국을 넘나들며 전개되었으며 단행본, 기사 등으로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신했다.

1970-90년대 냉전과 소련의 해체 등 격동하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재일코리안들은 상이한 방식으로 교류를 이어갔다. 1970-80년대 초반까지 직접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본인을 통해 고려인과 교류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재일코리안과 고려인이 서로의 거주국을 오가거나 제3국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활용했다. 재일코리안과 고려인은 초국가적 교류를 통해 본국과 거주국에 문화적 영향력을 발신했으며 거주국의 다양한 소수민족들과 집단정체성을 형성했다. 디아스포라의 초국가적 교류양상을 확인함으로써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다이나미즘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A Study on Transnational Exchanges between Zainichi and  
Goryeo-in, and the Cultural Landscape of Diaspora**  
- Focusing on 『Sanzenri(三千里)』, 『Minto(民濤)』, and 『Seikyu(青丘)』 -

Lee, Youngho (Dongguk University)

Since the 1970s, Zainichi society has shown an interest in overseas Koreans and particularly in the geographically adjacent Goryeo-in. Zainichi society interacted with Goryeo-in in various ways in each era, and the specific aspects of exchanges can be found in the Zainichi magazines Sanzenri (三千里), Minto (民濤), and Seikyu (青丘).

Zainichi society paid attention to the lifestyle of Goryeo-in while forming a point of contact with their home country's culture, such as food and traditional games, in the process of exchanges. On the other hand, Goryeo-in society shows that their home country's culture is deterritorialized and reterritorialized in their country of residence. Furthermore, this study discusses what national tradition is for the diaspora and presents a post-national cultural discourse in which the culture of their home country and their country of residence are harmonized.

Zainichi society was foun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values and multilayered identities of the diaspora toward their home country and their country of residence by comparing each other's history and life with that of Goryeo-in as a mirror. In addition, they criticized Japan by comparing the policies of minorities in Japan and the Soviet Union. The exchanges of the diaspora spread across their home country and their country of residence and exerted an actual influence through books and articles.

In the turbulent world history of the 1970s-1990s, including the Cold War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Zainichi society continued their exchanges in a different way. From the 1970s to the early 1980s when direct exchanges were difficult, they exchanged with Goryeo-in through the Japanese. From the late 1980s, Zainichi and Goryeo-in visited each other's countries of residence or used the Korean diaspora as a third country. Through transnational exchanges, Zainichi and Goryeo-in spread their cultural influence to their home countries and their countries of residence, while



forming a collective identity with various ethnic minorities in their countries of residence. This study could discover the dynamism and possibility of the Korean diaspora by examining aspects of transnational exchanges of the diaspora.

**【Keywords】** Zainichi, Goryeo-in, Sanzenri, Minto, Seikyu

논문투고일: 2022년 2월 9일 / 논문심사일: 2022년 4월 6일 /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24일

**【저자연락처】** kordiaspora@naver.com